스페인어의 전치사 de("of") 구문에 관하여

서 소 영
(전북대학교)

Seo, So Young. 2000. Constructions of the preposition DE("OF") in Spanish. *Linguistics* 8-1, 255-274. There has been a hypothesis of the predicate Movement in the generative grammar recently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of the preposition DE/OF. In this paper, we tried to reanalyze basically the preposition DE/OF as a type of the copular, applying the syntactic phenomenon which appear in the SN, for example, the Movement of the predicate from the SC, to the constructions possessives TENER/HAV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및 목적

스페인어에서 다른 일반적 전치사 용례로부터 구별되면서 단순한 격 할당자로 인지되어 온 전치사 de ("of") 구문은 지금까지 스페인 언어사를 따라 여러 다른 방식으로 분석되어져 왔다. 특히, 최근 생성문법에서 언급한 구문은 명사구 이동을 허용하는 특정 구문으로 정의되면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격 할당자 de를 수반하는 스페인어 명사구 구문을 재분석하고, 다른 언어들에서의 관련 명사구 구문과의 관계를 재 고찰함으로써 언급한 명사구 구조에 관한 보편적 분석을 제안하는데 있다.

2. 격 할당자 de ("of")를 수반하는 명사구의 통사적 특성 및 기존 분석.

2.1. 격 할당자 de 구문의 통사적 특성.

스페인어에서 일반적으로 단순한 속격 할당자로 분석되어져 온 전치사 de 구문은 일반적 계사형태인 ser("be")나 혹은 소유동사 tener("have")

등으로 대체 가능한 명사구문에 해당되는데, 관련 예문은 다음과 같다.

(1) a. El tonto de Ernesto.
'the fool of Ernesto'
b. Ernesto es un tonto.
'Ernesto is a fool'

(2) a. El gato del niño.
'the cat of the boy'
b. El niño tiene un gato.
'The boy has a cat'

즉, 위의 예문 (1, 2)에서 볼 수 있듯이, 언급한 전치사 de 구문은 문으로 전환할 때 ser ("be")/ tener("have") 구문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명사구문은 통사적 속성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다른 용법의 전치사 de("of") 구문과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Suñer (1990)가 지적한 바대로, (1-2)구문에서 나타나는 전치사 de는, 일반적으로 의미를 내포한 채 파생된 전치사 de와 달리, 한정수식어의 출현을 허용하지 않는다.

(3) a. Este comentario resulta especialmente de mal gusto.
'this comment result specially in bad taste'
b. Lo digo muy en serio. 'it (I)say very seriously'
(4) a. El abrigo (*muy) de Pepe. 'the coat (very) of Pepe'
b. El tonto (*especialmente) de Carlos.
'the fool (specially) of Carlos' (Suñer, 1990, p.346)

구체적으로, 위의 예문들 가운데 (3a, b)은 의미를 내포하는 일반적 형태의 전치사 de를 내포하는 구문인 반면, (4a, b)의 경우에 전치사 de는 단순한 속격 할당자에 불과하다. 이때, (3-4) 간의 대조에서 볼 수 있듯이, 후자의 경우 어떠한 형태의 한정수식어 출현도 허용하지 않는 반면, 전자의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이를 취한다.

이와 같은 속격 할당자 de를 내포하는 구문들에 관하여, 생성문법 사에서 분석되어온 가장 핵심적 제안은 tener("have")를 내포하는 소유구문과 de("of")를 수반하는 명사구 구문과의 직접적 연계성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명사구와 절간에 구조적 상응관계가 존재한다는 최근 연구들과 더불어 (Abney, 1987, Szabolcsi, 1987, 1994, Zamparelli, 1993, Zabala &

Odriozola, 1996), 소유동사 tener/have를 내포하는 구문과 전치사 de/of를 수반하는 명사구조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온 것이다 (Kayne, 1993, 1994, Den Dikken, 1995a, Bennis, Corver & Den Dikken, 1996). 이러한 분석들은 각각 방법론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지만, 언급한 명사구조가 소절을 내포, 명사구 이동을 통해 파생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다시 말해, 관련 명사 구문들에서 나타나는 전치사 de는 진정한 하나의 전치사가 아니라 단순한 속격 할당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Stowell, 1981, Borer, 1984, Suñer, 1990, Ritter, 1991).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문의 구조에 있어서 tener/ser 등으로 대체 가능한 이러한 명사구조들 간에 존재하는 의미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언급한 전치사는 두 명사적 요소들을 연합시켜주는 일종의 연계사로, 격 할당자로 정의될 뿐 명사구조의 의미적 해석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내에서, 모든 의미적 차이는 소절내의 두 명사적 요소간에 설정되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결국,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분석해볼 때, 속격 할당자 de를 내포하는 명사구문들은 다음의 파생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5) a. El [tonto$_i$ [de [$_{INFLP}$ Ernesto [INFL t_i]]]].
'the fool of Ernesto'
b. Ese estúpido de vecino. 'that dumbo of neighbor'

(6) a. El [burro$_i$ [del [$_{INFLP}$ herrero [INFL t_i]]]].
'the donkey/stupid of the blacksmith'
b. Los animales de los forasteros. 'the animals of the strangers'

예문 (5-6)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대로, 스페인어의 속격 할당자 de 구문은 소절로부터 술부의 이동을 통해 얻어진다고 분석해볼 수 있다.

2.2. 기존 분석과 몇몇 문제점들.

격 할당자 de와 소유동사 간의 직접적 연계성을 설정한 대표적 학자로서 Kayne (1993, 1994)을 들 수 있다. Szabolcsi (1983, 1994)와 Freeze (1992)가 제안한 소유동사 분석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Kayne (1993, 1994)은 소유동사 have는 be 동사에 어떠한 한정적 요소가 부가됨으로써 발현된

다는 점을 지적한다. 여기서, 한정적 요소라는 것은 다음 명사구에서 속격 할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치사 of와 동일시되는 추상적 요소로 정의된다.

(7) Two pictures of Mary's.

결과적으로, Kayne의 기본적 제안은 소유동사 have를 발현하기 위해 be 동사에 부가되는 추상적 한정요소, 구체적으로, of에 상응하는 전치사적 한정사 (Determinant Prepositional)의 존재를 설정하는데 기초한다. 이러한 관점 내에서, 소유동사 have는 다음의 과정 속에서 발현된다.

(8) a. ...be [DP Spec D/P (abstract) [DP possessor [INFL CuanP/NP]]].
a'. ...be [DP DPpossessor$_i$ D/P (abstract) [[t_i] [INFL CuanP/NP]]].
a''. ...be [DP DPpossessor$_i$ D/P (abstract)$_j$ + be [DP [t_i'] t_j [[t_i] [INFL CuanP/NP]]].

(8a)에서 나타나는 소유자 명사구는 (8a')를 형성하면서 (추상적) 전치사적 한정사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되며, 그곳에서부터 다시 be 동사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된다. 이 때, be 동사로의 전치사적 한정사의 부가 과정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8a'') 문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Kayne의 분석이 다소 문제점을 내포한다는 최근 분석들이 대두되어 왔다 (cf. Tellier (1994, p.248)). 특히, Tellier(1994, p.243)에 의하면, 위의 분석은 통사적 측면 이외에 다음의 기술적 문제점을 지닌다: 영어에는 (8)에서 제안한 Kayne 구조 내에서 파생될 수 없는 문장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다음 (9a) 예문에서 소유자 John은 Kayne의 구조에서 INFLP의 지정어 위치를 차지하므로, 언급한 위치가 명사구 Sarah를 위해 사용될 수는 없다. 동일한 문제를 (9b)의 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9) a. Sarah has John's book. b. Sarah has a book of John's.

게다가, 이러한 경우에, Kayne이 주장하는 바대로, 전치사적 한정사는 소유자 John의 격 만족을 위해 of로 실현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동시에 소유동사 have 발현을 위해 be에 부가될 수는 없다.

3. 제안: 동일 기능핵의 발현으로서 tener ("have")/ de ("of")

ser 혹은 tener로 대체 가능한 전치사 de를 수반하는 명사구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de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Kayne (1993, 1994) 이래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tener 동사와 전치사 de 간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가정들을 제안한다.

먼저, 본고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기본적 가설은 'NP DE/OF NP' 구문에서 두 명사적 요소간의 연계사 역할을 수행하는 격할당자, 전치사 de가, Kayne이 주장하는 대로, 소유동사 tener/have의 발현의 일부를 형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일종의 독자적 계사형태로 정의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 a hell of a problem과 같은 영어의 'N OF A N' 명사구문에서 전치사 of가 '명사적 계사'처럼 행동한다는 Den Dikken (1995a), Bennis, Corver & Den Dikken (1996)의 관점과 동일선상에 있다. Den Dikken (1995a, p.20)이 제안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다.

(10) a. A hell of a problem.

b. [DP Det [FP Spec [NumP t_j hell]$_i$] [F of + [Agr Agr + [Num a]$_j$]$_k$] [AgrP [NumP problem] [Agr' t_k [NumP t_i]]]]].

(여기서, FP= Functional Phrase)

Den Dikken (1995a), Bennis, Corver & Den Dikken (1996)의 분석에 따르면, 부정관사 "a"는 소절을 투사하는 기능핵 Agr에 부가된다. 이러한 부가는 소유동사 have를 발현하기 위해 Freeze (1992), Kayne (1993, 1994) 등에 의해 시도된 추상적 전치사의 부가에 기초한다. 다시 말하면, 소유동사 have와 전치사 of 간의 평행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of를 수반한 명사구문에서 역시, hav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현을 위해 "a"와 같은 어떠한 요소의 부가과정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1]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점 내에서,

1. 여기서, 소유동사 *have*의 발현을 위한 추상적 전치사 도입은 Freeze (1992)가 제안한 소유구문 분석에 기초한다. 그러나, Den Dikken (1995a), Bennis, Corver & Den Dikken (1996)에 의해 실현된 분석은 언급한 전치사가 여격 전치사에 해

부정관사 "a"의 부가 과정은 have 구문과 of 구문의 직접적 연계성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고에서는 전치사 of를 일련의 계사형태로 간주하는 Den Dikken (1995a), Bennis, Corver & Den Dikken (1996)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소유 문에서의 추상적 전치사 출현과 명사구문에서 부정관사 출현이 어떻게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한 작가들이 제시한 (cf. (13b)의 구조) have 구문과 of 구문간의 평행관계를 설정하는 방법론은 문제점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명사구문에서 부정관사의 부가와 그리고 절에서 추상적 전치사의 부가에 근거, 절과 명사구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 우리는 tener ("have"), de ("of") 등 다양한 계사구조는 실제로 일반 계사형태인 ser("be") 구문과 동일선상에서 분석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 위의 세 형태의 계사들은 동일한 핵의 다양한 음성적 발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근본적으로 계사는, T, COMP, υ와 같은 다른 기능범주들과 마찬가지로, 어휘부 (lexicon)에서부터 확대투사 선별 자질 (EPP)을 내포한 채로 파생되는 일련의 기능범주에 해당된다는 우리의 분석 (Seo, So Young, 1997, 1999)에 근거한다.

계사에 관한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본 고에서는 소유동사 tener/have 에 관한 분석 그리고 이와 같은 소유동사와 전치사 de/of간의 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격 할당자로 인지되어온 언급한 전치사의 속성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3.1. 소유동사 tener 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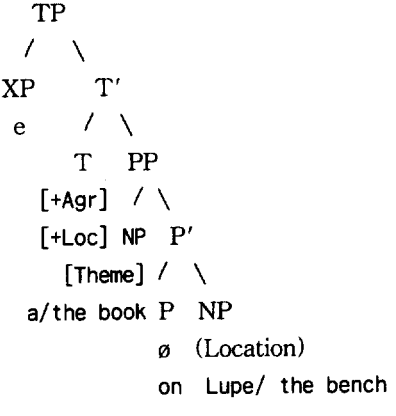
최근 생성문법 연구에서, 소유동사 tener/have나 전치사 de/of를 일종의 계사로 보고 이를 통사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가 많이 대두되어 왔다. (Bach, 1967, Guéron, 1986, Lyons, 1967, 1968, Kayne, 1984, 1993, 1994, Freeze, 1992, Den Dikken, 1995a, Bennis, Corver & Den Dikken, 1996, Echevarría, 1997, Muromatsu, 1997, Postma, 1997). 구체적으로, Bach (1967)가 영어 have동사를, 그리고 Guéron (1986)이 불어 avoir 동사를 be/être와 같은 일종의 계사형태로 정의한 이래, 최근 생성문법 연구에서

당된다는 점에서 Freeze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have/avoir에 상응하는 소유동사는 존재 be로부터 파생된다는 견해가 제안되어왔다. 이러한 관점을 취한 대표적 작가로서 Freeze (1992)를 들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다음의 세 종류의 문장은 보편적으로 동일 구조에서 파생된다.

(11) a. The book is on the bench. b. There is a book on the bench.
c. Lupe has a book. (Freeze, 1992, p.553).

(12)



이러한 구조에서 소유문의 소유자는 일종의 '장소 논항' (el argumento locativo)에 해당된다. 여기서, 도입된 계사, 구체적으로 존재 be, 에 관하여 Freeze는 근본적으로 이를 기능핵 T 자질들의 발현이라고 가정한다. [2] 이와 같은 분석의 핵심은 have동사를 "be동사 +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장소 전치사" 복합체의 발현으로 정의한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이, have 동사를 단순 소유동사가 아닌 일종의 계사로 분석, 그 통사적 측면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성을 지니는 반면, 역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난다. 예를 들어, Freeze의 분석은 계사 be의 정의와 관련하여 약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우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reeze에게 있어서 계사 be는 기능핵 T 자질들의 발현이며, 이러한 계사에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장소 전치사가 인상, 부가할 때 have와 같은 소

2. 계사 be가 시제 자질의 지탱요소 역할을 수행하는 문법요소라는 입장을 취한 또 다른 학자들로서 Bach (1967), Demonte (1979), Blight (1997) 등이 있다.

유동사가 파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다음의 예문들이 보여 주듯이, 아이슬랜드어와 같이 목적어 인상을 허용하는 언어들의 소유구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문제시된다.

(13) a. Jón las bækurnar ekki. b. Jón las ekki bækurnar.
'John read the books no' 'John read no the books'
c. Ég hef bókina ekki.
'I have the book no' (Collins & Thráinsson, 1996, pp.392, 427)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아이슬랜드어는 목적어 이동 (Object Shift)을 허용하는 언어이다. 즉, (13a) 예문에서 목적어 bækurnar는 부정어 ekki를 지나 이동한다. Collins & Thráinsson (1996, p.427)가 지적했듯이, 언급한 언어의 소유동사 hafa ("have") 역시 다른 일반 타동사와 마찬가지로 목적격을 내포한 명사구의 이동을 허용한다. 일반 타동사 구문에서 목적어 이동은 Jonas & Bobaljik (1993), Jonas (1996), Collins & Thráinsson (1996), Chomsky (1995, 1998a, b) 등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Chomsky에 따르면, 타동사 구문에서 목적어 이동은 기능핵 υ의 EPP 선별자질 만족을 위해 실현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기능핵 υ를 결여한 have에 상응하는 소유 동사를 내포한 문에서 목적격을 수반한 명사구의 이동을 유인할 어떠한 기능범주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계사 be가 일련의 T 자질들의 발현으로서 이에 삽입된다는 Freeze의 계사에 관한 정의 내에서는 이러한 목적어 이동 등 통사적 현상이 설명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위의 (12)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계사 be가 삽입된 기능핵 T가 직접적으로 전치사구를 투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목적어 이동은 다소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have에 상응하는 소유동사는 일반 타동사와 구별 없이 정의되어야 하는가?, 계사 be와의 관계성을 연구한 수많은 연구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본고에서는 다음의 분석을 제안한다.

먼저, 우리는 소유동사 tener/have, 그리고 존재 be를 통해 소유를 나타내는 언어들에서 존재 be는 일반 존재 구문에서 사용되는 존재 be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Freeze와 달리 존재문과 소유문의 직접적 관계성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통사적 현상이 존재하지만 (cf. Seo, So Young, 1999), 본고에서는 소유구문 술부와 존재구문 술부를 구분하는 다음의 검증을 제시한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Freeze에게 있어서 소유구문과 존재구문은 동일 술부형태를 취하며 이때 소유자는 추상적 전치사를 내포하는 장소 논항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tener/have에 상응하는 소유동사를 결여하는 언어에 속하는 일본어 자료들을 통해 Muromatsu (1997)가 지적했듯이, 양 구문은 event 자질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속성을 보여준다. 즉, 소유구문 술부는 Individual-Level 술부에 해당되는 반면 존재구문 술부는 Stage-Level에 속한다. 이러한 양 구문에 있어서의 차이는 다음의 스페인어 자료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14) a. La revista está en el coche.
'the magazine is(존재) in the car'
b. El motor está en el coche. c. El coche tiene un motor.
'the motor is(존재) in the car' 'The car has a motor'

영어의 be는 스페인어와 같은 언어에서 ser/estar 등 두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ser는 Individual-Level 술부에서 나타나는 반면 estar는 Stage-Level 술부에서만 사용된다. 여기서, estar 동사는 일시적 상태나 장소 등을 나타내기 위해 도입되며, Hornstein, Rosen & Uriagereka (1994) 등이 연구한 존재 구문의 이중적 해석 ('존재'/'소유')을 지니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estar 동사는 존재구문에서는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소유구문에는 도입될 수 없다. 언급한 언어에서 소유구문은 (14c) 예문에서와 같이 tener ("have") 동사를 통해 실현된다. 이와 같이 영어의 be에 상응하는 계사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스페인어와 같은 언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존재술부와 소유술부는 서로 상반된 속성을 내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양 구문에서 술부의 속성과 관련된 차이점들은 우리에게 존재문에 도입되는 술부와 소유문에 나타나는 술부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러한 분석들은 존재문과 소유문간에 술부에 있어서 유사성이 존재하며 소유자는 추상적 장소 전치사를 수반한 장소 논항에 상응한다는 Freeze의 관점이 문제점을 지닌다는 것을 검증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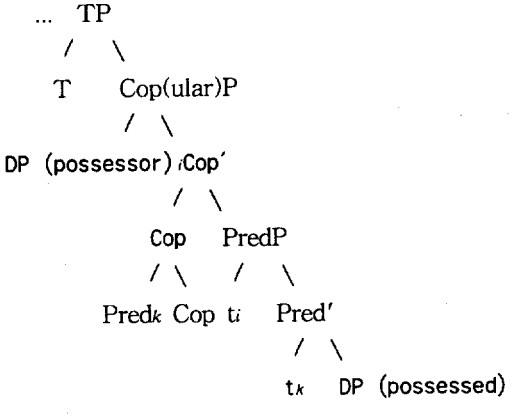
Tener와 같은 소유동사는 의미를 지닌 일반 타동사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며 이는 일련의 계사로 정의된다는 입장을 근본적으로 취하면서

(Benveniste, 1966, Bach, 1967, Den Dikken, 1995a, 1997, Uriagereka, 1997, Ritter & Rosen, 1991, 1993, 1997), 우리는 ser ("be")/tener ("have") 등 다양한 형태의 계사들의 단일화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즉,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존재 be 동사는 have에 상응하는 소유동사나 이를 결여하는 언어들에서 '소유'를 나타내는 존재 be 동사로부터 구분된다는 관점을 기본적으로 제시한다. Freeze (1992), Tellier (1994), Kayne (1993, 1994)과 달리, 존재문과 소유문 간의 직접적 연관성을 설정하는 대신, 본 연구에서는 소유동사 tener/have가 일반 계사인 ser/be와 동일 선상에서 분석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한다. 즉, 계사들은 일종의 기능핵의 발현으로 정의되며, 어휘부 (lexicon)에서부터 확대투사원리 선별자질을 지닌 채 파생된다는 가정에 기초 (Seo, So Young, 1997, 1999), 여기서 우리는 일반 계사 ser/be 뿐만 아니라 일련의 또 다른 계사로 알려진 소유동사 tener/have 역시 언급한 자질을 가지고 파생된 동일 기능범주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tener/have와 같은 소유동사는 의미를 내포하는 일반 타동사로부터 구별되며 소유문 내에서 설정되는 의미관계는 소유동사에서부터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소절 내부의 소유자와 피소유자 간에 설정되는 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Ritter & Rosen (1997), Uriagereka (1997) 등의 관점에 기초한다.

그렇다면, 일반 계사 ser/be와 소유동사 tener/have 간에 존재하는 차이점에 관하여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이미 인지하는 바대로, 소유구문에서는, 일반계사구문에서와 달리, 대격 자질을 내포하는 명사구가 존재한다. 양 구문에서 격과 관련된 차이에 관하여 여기서 우리는 각 구문의 술부를 유도하는 Pred(ication)의 속성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소유구문들에서 소절을 투사하는 기능핵은 격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는 Muromatsu (1994, 1997)의 관점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본 고에서는 ser를 수반한 일반 계사구문에서와 달리 tener를 내포한 소유구문에서 소절을 유도하는 Pred는 어휘부 (lexicon)에서부터 대격 자질을 지닌 채 파생된다고 가정한다. 즉, 소유문에서 추상적 장소 전치사가 대격 자질을 내포한 채로 파생된다는 Freeze (1992), Tellier (1994)의 견해와 달리, 우리는 소유문에서 소절을 유도하는 Pred의 출현과 더불어 언급한 구문에서 나타나는 명사구의 대격 자질이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관점에 따르면, 소유문에서 소절을 투사하는 기능핵 Pred는 어휘부 (lexicon)에서부터 대격 자질을 지닌 채 파생되며 파생과정에서 대격 자질

점검을 위해 기능핵인 계사에 인상, 부가된다. 관련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3)]

(15)



(15)의 구조에서, 소절을 유도하는 기능핵 Pred는 대격 점검을 위해 또다른 기능핵인 계사에 인상, 부가되며 DP 소유자는 기능범주인 CopP가 내포하는 EPP 자질 만족을 위해 언급한 기능범주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 병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한 분석에서 왜 피소유자는 계사가 투사하는 기능핵의 EPP자질을 만족하기 위해 이동, 병합 할 수 없는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즉, 다음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ser/be를 수반한 일반 계사 구문에서와 달리 소유구문에서 술부도치는 일어나지 않는다.

(16) a. María tiene una casa. b. *Una casa tiene María.
'Mary has a house' 'A house has Mary'

계사구문들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에 관하여 우리는 '계사 + Pred' 복합체가 내포하는 대격 자질 점검 과정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대

3) 여기서 소절을 투사하는 기능범주를 PredicationP로 설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Bowers (1993) 가설에 기초한다. 관련 구조에 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Bowers (1993, p.605)를 참조하시오.

격 자질을 수반한 명사구의 이동을 허용하는 아이슬랜드어 같은 언어에서와 달리 스페인어와 같은 언어에서 대격 자질은 in situ 상태에서 점검된다. 다시 말해, 다음 재인용된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스페인어와 달리, 대격 자질을 지닌 명사구의 이동을 허용하는 아이슬랜드어에서 피소유자는 부정어에 전치, CopP로의 범주적 이동을 겪는다.

(17) a. Ég hef bókina ekki. 'I have the book no'

b. [TP Ég$_i$ [T' T(Cop + Pred$_l$)$_k$ [CopP bókina$_j$ [Cop' t$_k$ [PredP ekki [PredP t$_i$ [Pred' t$_l$ t$_j$]]]]]]].

기능핵으로서 계사는 EPP 자질을 내포한 채로 파생된다는, 본고에서 제안한 분석에 따라, 우리는 (17a) 문에서 계사는 피소유자 bókina의 이동을 통해 계사의 선별자질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소절을 보어로 취하는 구문에서 부정어 ekki는 PredP에 부가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이동하는 피소유자가 언급한 부정어에 전치한다고 분석한다. 이와 같이 목적어 이동을 허용하는 언어들은 일반적으로 동사인상 언어들에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해 볼 때 (Jonas & Bobaljik, 1993, Jonas, 1996, Collins & Thráinsson, 1996), 왜 다음의 (18b)문은 비문 처리되는지 설명 가능하다.

(18) a. Ég hef bókina ekki. b. *Bókina hef ég ekki.
'I have the book no' 'The book have I no'

즉, 'Cop + Pred' 복합체가 기능핵 T에 인상함으로써, 소유자 Ég는 이동된 피소유자가 위치한 CopP의 지정어 자리를 지나 ST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될 수 있다. 결국, 계사의 T로의 인상과 더불어 실현되는 이러한 소유자의 이동은 왜 아이슬랜드어와 같은 언어에서 피소유자의 도치구문이 불가능한지를 설명해준다. CopP의 지정어 자리로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피소유자 bókina는 T로의 계사의 인상으로 인해 후치 된 위치에 머물게 된다.

3.2. 전치사 de 구문.

본고에서 우리는 일관적으로 계사는 일련의 기능핵의 발현이며 어휘부로

부터 자신의 EPP자질을 내포한 채 파생된다는 점을 가정했다. 그렇다면, ser/tener 구문으로 대체 가능한 전치사 de 구문은 이러한 가정 하에서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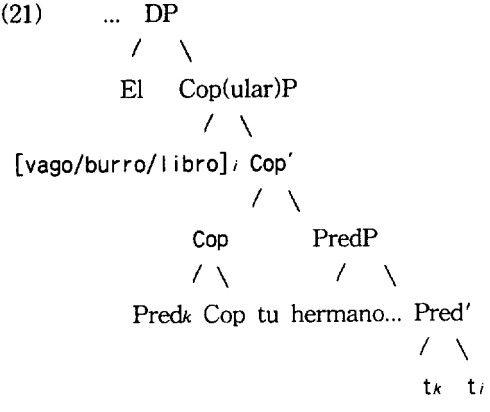
이에 관해, 우리는 먼저 언급한 전치사를 내포하는 구조들은 본고에서 제시한 ser/tener를 수반하는 계사구문들에 관한 분석 내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즉, ser/tener/de 등 여러 형태의 계사들에 관한 단일화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문법에서 이미 인지된 T, υ, COMP와 같은 다른 기능범주와 마찬가지로 EPP 자질을 가지고 파생된 동일한 기능핵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본 분석에 따르면, 기능범주 T가 계사구문에 투사된다면 계사 기능핵은 T에 조합된 동사 자질 점검으로 인해 ser/tener와 같은 동사형태로 발현된다. 반면에, 기능핵 T가 투사되지 않는 경우에 계사 기능핵은 de의 형태를 취한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계사의 형태적 다양성은 동일핵의 발현상의 차이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동사형태를 취하는 계사들과 명사적 계사간의 근본적 차이는 어떻게 설명되는가? 우리는 이에 관해, 양 구문에서 격의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한다. 즉, 기능핵 T가 투사되는 계사구문에서 주어의 격자질은 언급한 T와의 점검을 통해 실현되는 반면, 기능핵 T를 결여하는 명사구조에서 주어 (구체적으로 전치사 de에 의해 지배되는 명사구)의 격자질은 계사형태인 de가 투사하는 기능핵과의 점검을 통해 만족된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위의(5-6)의 예문들은- 여기서 (19-20) 예문들-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최소연결조건 (Minimal Link Condition)[4]에 의한 기능핵 Pred의 Cop의 부가과정 등은 생략한다. 이를 위해서는 Den Dikken, 1995a, Seo, So Young, 1999를 참조하시오).

(19) a. El [tonto$_i$ [de [INFLP Ernesto [INFL t_i]]]].
'the fool of Ernesto'
b. Ese estúpido de vecino. 'that dumbo of a neighbor'

4. Chomsky (1993)에서 제안된 최소연결 조건은 Chomsky (1995, 1998a, b)에 이르면서 보다 더 간소화되었다. 그러나, Chomsky가 다룬 타동사 구문 이외에 다른 구문에서 이러한 최소연결 조건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소절을 내포하는 구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Uriagereka, 1997, pp.19-20).

(20) a. El [burro$_i$ [del [INFLP herrero [INFL t_i]]]].
'the donkey/stupid of the blacksmith'
b. Los animales de los forasteros. 'the animal of the stranger'

(21)


계사구조에 관한 단일화 분석 하에서, 우리는 동사적 형태를 취하는 ser/tener 등의 계사와 마찬가지로 명사적 계사에 해당하는 전치사 de 역시 어떠한 요소의 이동, 병합을 통해 자신의 EPP 선별자질을 만족할 것을 필요로 하는 일련의 기능핵의 발현으로 가정한다. 위의 (21)의 구조에서 술부 명사구는 Cop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 병합함으로써 언급한 기능핵의 선별자질을 만족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계사 de의 EPP 자질이 술부 명사구와 같은 일련의 소절요소의 이동을 통해 만족된다는 점은 다음의 자료들을 통사적으로 설명해주는 이점을 지닌다.

(22) a. Este comentario resulta especialmente de mal gusto.
b. Lo digo muy en serio.
(23) a. El abrigo (*muy) de Pepe.
b. El tonto (*especialmente) de Carlos. (Suñer, 1990, p.346)

이미 지적한 바대로, 계사구조에서 나타나는 전치사 de (예문 23)는 일반적으로 의미를 내포한 채 파생된 전치사 de (예문 22)와 구조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즉, 위의 예문들 간의 대조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의 경우 어떠한 한정수식어 형태의 출현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후자의 경우 이를 취한다.

우리의 관점 하에서, 계사형태인 de의 지정어 위치에 이러한 수식어가 올 수 없는 이유는 언급한 위치가 계사 기능핵의 EPP 선별자질을 만족키 위해 이동된 술부 명사구로 인해 이미 채워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de를 수반한 위의 명사구조들은 소절로부터 술부 명사구의 CopP로의 EPP자질 만족을 위한 이동을 통해 파생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관점 하에서 동일한 기능핵의 발현으로서 정의되는 다양한 형태의 계사들은 관련 격자질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계사가 투사하는 기능핵은 격자질을 내포하느냐, 결여하느냐에 따라 다음 두 종류로 분류된다: (i) [+격자질], 그리고 (ii) [-격자질]. 명사적 계사형태 (Den Dikken, 1995a 용어로) de가 (i) 부류에 속하는 반면, ser나 tener 동사형태의 경우는 (ii) 부류에 해당된다.

두 번째, 계사구문에서 소절을 투사하는 기능핵 Predi(cation) 역시 격자질의 내포 여부에 따라 다음의 경우로 분류 가능하다: (a) [+대격자질], (b) [+속격자질], (c) [-격자질]. 동사적 계사형태 (Den Dikken, 1995a 용어로) tener/have의 경우에 소절을 투사하는 기능핵 Pred는 대격을 내포한 채 파생됨으로써 (a)에 속하는 반면, 명사적 계사형태 de/of나 동사적 계사형태 ser/be 구문에서 투사되는 Pred는 격자질을 결여함으로써 (c)의 경우에 해당한다. 즉, 우리의 분석 하에서, 다양한 계사형태는 동일한 기능핵의 다른 발현의 결과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계사들 간에 존재하는 형태론적 다양성은 단지 형식자질들에 기인한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해야할 사항은 (b)의 경우의 가능성이다. 즉, 계사구문에서 소절을 투사하는 기능핵이 속격 자질을 내포한 채 파생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가 ?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관하여 소유 DP 구조에서 속격 자질 점검에 관한 여러 언어들 간에 매개변인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소유 DP 구조에 관하여 언어들 간에 전치사 de/of 의 실현과 더불어 두 형태로 분류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A) 명사적 계사형태인 de/of에 상응하는 요소가 음성적으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는 언어들, (B) 속격 할당자 형태로서 de/of 등이 음성적으로 나타나는 언어들. (A)의 경우에서 우리는 일본어, 라틴어 그리고 영어의 소유 형태 "'s" 등을 찾아볼 수 있으며, (B)의 부류에 속하는 언어로서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스페인어 de, 영어 of 구문 등을 언급해볼 수 있다. 관련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5]

(24) a. Jiro-no kodomo. (일본어)
'Jiro-GEN child'
b. [DP D [CopP Jiro-no$_i$ [Cop' (Cop + Pred$_j$) [PredP t$_i$ [Pred t$_j$ kodomo]]]]]].

(25) a. Petr-i liber. (라틴어)
'Petr-GEN book'
b. [DP D [CopP Petr-i$_i$ [Cop' (Cop + Pred$_j$) [PredP t$_i$[Pred t$_j$ liber]]]]]].

(26) a. John's book. (영어)
b. [DP D [CopP John$_i$ [Cop' (Cop + Pred('s)$_j$) [PredP t$_i$ [Pred t$_j$ book]]]]]].

(27) a. The book of John.
a'. [DP The [CopP book$_i$ [Cop' (Cop + Pred$_j$) [PredP John [Pred t$_i$ t$_j$]]]]]].
b. El libro de Juan. (스페인어)
b'. [DP El [CopP libro$_i$ [Cop' (Cop + Pred$_j$) [PredP Juan [Pred t$_i$ t$_j$]]]]]].

위의 대조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 of 구문이나 스페인어의 de 구문과 달리 일본어, 라틴어 혹은 영어의 "'s" 구문 등에서 언급한 명사적 계사형태는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문은 어떻게 분석되어야 하는가 ? 그리고 언급한 구문에서 속격 자질은 어떻게 점검되는가 ? 우리는 이러한 구문들에 관하여 일련의 매개변인적 차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de/of 에 상응하는 명사적 계사형태, 격 할당자가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언어나 구문에서 속격은 소절을 투사하는 기능핵 Pred의 격자질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에 언급한 기능핵 Pred는 어휘부 (lexicon)에서부터 속격 자질을 내포한 채로 파생되며, 속격 점검을 위해 계사를 투사하는 기능핵 Cop에 부가된다. 우리의 이러한 가정은 위의 영어 "'s" 구문 (26)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고에서 제안하는 이와 같은 분석은 영어의 소유형태 "'s"에 관한 다

5. 여기서, 비록 D가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지만, 일본어와 같은 언어에서도 역시 DP 구조를 내포한다는 일반적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DP 구조를 근본적으로 가정한다. 관련 내용을 위해서는 Muromatsu (1997)를 참조하시오.

음의 분석에 기초한다.

최근 Kayne (1993, p.5)을 중심으로, 영어 소유형태 "'s" 구문에서 "'s"는 Agreement에 유사하다는 가설들이 대두되어 왔다. 관련 예문은 다음과 같다 (Kayne, 1993, pp.5-6).

(28) a. ??What woman were you talking to a friend of's ?
b. **What woman's were you talking to a friend of ?
(29) a. *Those kids's mother. b. *My sisters's common trait.

(28a, b)의 대조는 우리에게 소유요소 "'s"가 명사 woman와 한 복합요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증해주며, (29)의 예문은 소유형태 "'s"가 복수형태인 소유자와 함께 도입될 수 없다는 점, 즉, "'s"가 일치 Agreement를 나타낸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는 명사적 계사형태가 음성적으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는 구문에서 언급한 소유형태는 소절내부에서 일치, Agreement 자질 점검을 맡고 있는 기능핵, 즉 소절을 투사하는 기능핵 Pred의 실현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능핵 Pred, 즉, 소유형태 "'s"는 명사적 계사형태가 형태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그러한 명사구문에서 속격 자질 점검을 위해 계사가 투사하는 기능핵에 부가된다. 즉,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명사적 계사형태를 내포하는 소유명사구조에서 소유형태 "'s"는 어휘부 (lexicon)에서부터 속격 자질을 지닌 채 파생된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분석 하에서, 영어의 소유형태 "'s"를 내포하는 명사구문은 다른 소유 명사구문과 달리 특정한 구문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명사적 계사형태를 내포하는 소유명사구문의 부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명사구문에서 나타나는 속격 할당자 de/of 역시 다른 동사적 형태를 지니는 계사형태들과 동일하게 분석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우리의 관점 하에서 동사적 형태의 계사들과 명사적 형태의 계사간의 차이는 다음으로 일축된다: 기능범주 T가 계사구문에 투사된다면 계사 기능핵은 T에 조합된 동사 자질 점검으로 인해 ser/tener와 같은 동사형태

로 발현되는 반면, 기능핵 T가 투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사 기능핵은 de의 형태를 취한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계사의 형태적 다양성은 동일핵의 발현상의 차이, 즉, 음성부 조건에 제한된다. 이러한 분석 내에서, 우리는 또한 전치사 de의 음성적 출현에 따른 속격 점검과 관련하여 언어간에 매개변인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참고문헌

Abney, S. (1987): *The English Noun Phrase in its Sentential Aspect*, Ph.D. dissertation, MIT.

Bach.E. (1967): "HAVE and BE in English Syntax", *Language*, 43, pp.462-485.

Bennis, H., Corver, N. & Den Dikken, M. (1996): (A)symmetries in Predication, and the Meaning of
Structure", *GLOW*, 36, pp.18-19.

Benveniste, E. (1966):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ís, Gallimard.

Blight, R.C. (1997): "Verb Movement and the Distribution of Copular BE", *NELS*, 27, pp.49-63.

Borer, H. (1984): *Parametric Syntax*, Dordrecht, Foris.

Bowers, J. (1993): "The Syntax of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24, pp.591-656.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IT Press.

_____(1998a):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ms., MIT.

_____(1998b): "Minimalist Inquiries", *MIT Workin Papers in Linguistics*, 15, pp.1-61.

Collins, C. y Thráinsson, H. (1996): "VP-Internal Structure and Object Shift in Icelandic", *Linguistic Inquiry*, 27, pp.391-444.

Demonte, V. (1979): "Semántica y sintaxis de las construcciones con SER y ESTAR", *Revista Española de Lingüística*, 9, pp.133-171.

Den Dikken, M. (1995a): "Copulars", *GLOW*, 34, pp.20-21.

_____(1995b): "Verb (Projection) Raising, Scope, and Uniform Phrase Structure", *NELS*, 25, pp.95-110.

Echevarría, M. (1997): "Inalienable Possession in Copulative Contexts and the DP-Structure", *Lingua*, 101, pp.211-244.

Freeze, R. (1992): "Existentials and other Locatives", *Language*, 68, pp.553-595.

Guéron, J. (1986): "Le verbe AVOIR", *Recherches Linguistiques de Vincennes,* 14/15, pp.155-186

Hornstein, N. Rosen, S. & Uriagereka, J. (1994): "Integrals", ms, University of Maryland.

Jonas, D. (1996): "Clause Structure, Expletives and Verb Movement", en W. Abraham, S.S. Epstein, H. Thráinsson, y C.J-W. Zwart (eds.): *Minimal Ideas: Syntactic Studies in the Minimalist Framework,*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pp.167-188.

Jonas, D. & Bobaljik, J. (1993): "Specs for Subjects: The Role of TP in Icelandic",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8, pp.59-98.

Kayne, R. (1984): *Connectedness and Binary Branching,* Dordrecht, Foris.

_____(1993): "Toward a Modular Theory of Auxiliary Selection", *Studia Linguistica,* 47, pp.3-31.

_____(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Li, Y. (1990): "X-Binding and Verb Incorporation", *Linguistic Inquiry,* 21, pp.399-426.

Lyons, J. (1967): "A Note on Possessive, Existential, and Locative Sentences", *Foundations of Language,* 3, pp.300-396.

Muromatsu, K. (1994): Integrals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Possessive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Maryland.

_____(1997): "Two Types of Existentials: Evidence from Japanese", *Lingua,* 101, pp.245-269.

Postma, G.J. (1997): "On the Configurational Nature of Possession", *Lingua,* 101, pp.271-294.

Ritter, E. (1991): "Two Functional Categories in Noun Phrases: Evidence from Modern Hebrew", *Syntax and Semantics,* 25, pp.37-62.

Ritter, E. & Rosen, S.T. (1991): "Causative HAVE", *NELS,* 21, pp.323-336.

_____(1993): "Deriving Causatio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1, pp.519-555.

_____(1997): "The Function of HAVE", *Lingua,* 101, 1997, pp.295-321.

Seo, S.Y. (1997): "La cópula como una categoría funcional", *Interlingüística,* 8.

_____ (1999): Aproximación minimista al estudio de las diversas formas copulativas: el verbo copulativo SER, el verbo posesivo TENER y la preposición débil DE, Ph.D. dissertation, UAM.

Stowell, T.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Ph.D. dissertation, MIT.

Suñer, A. (1990): *La predicación secundaria en español,* Ph.D. dissertation, UAB.

Szabolcsi, A. (1983): "The Possessor That Ran Away from Home", *The Linguistic Review*, 3, pp.89-102.

_____ (1987): "Functional Categories in the Noun Phrase", *Approaches to Hungarian*, 2, pp.167-190.

_____ (1994): "The Noun Phrase", *Syntax and Semantics*, 27, pp.179-274.

Tellier, C. (1994): "The HAVE/BE Alternation Atributives in French and English", *Probus*, 6, pp.235-262.

Uriagereka, J. (1997): "From BEING to HAVING: Questions about Ontology from a Kayne/Szabolcsi Syntax", ms. Zabala, I. y Odriozola, J.C. (1996): "On the Relation between DP and TP. The Structure of Basque Infinitivals", *Catala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5, pp.231-281.

Zamparelli, R. (1993): "Aspects of a ADJP=DP=CP Hypothesis", ms., University of Rochester.

전북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서어서문학과
E-mail: juventud@chollian.net